



少內灣되었는데彫
法的 纖麗함과 紋樣
配置의 莊重함이 西
紀 九、十世紀頃의
優品으로 推定된다.
現高 一五三cm 廣
幅 一四〇cm 下端幅
一〇〇cm 厚 七—九
cm.

註
① 朴敬源氏 「朝鮮
佛像의 光背에
對한 小考」(學
風) 一九四八年
十一月號 參照

② 이곳에는 高麗方
形 三層小塔과 李
朝石燈 各一基가
있다.

忠南出土 의 金銅佛 三例

洪思俊

寺址를 考察하면 高麗時代가 大部分을 占有했고 新羅統一期가 다음가고 公州와 扶餘를 中心하여 少數의 百濟寺址가 있음을 알겠다. 勿論公州

와 扶餘라 해서 반드시 百濟寺址만이 있다고는 斷言하기 어려우며 이곳에 紹介하려는 三佛은 一九六〇年에 忠南에서 發見되어 筆者가 調査한 것이다. (모두 扶餘博物館에 收藏되었다)

一、金銅立佛像(新羅統一)

出土地는 扶餘郡 窺岩面 津邊里의 浮山 東腹 靑龍寺址로서 扶餘高校 生(當時) 文癸鎬君이 一九五九年 여름에 發見하였다. 日政時에도 同寺 址에서 新羅統一時代 金銅立佛 一軀를 發見(文幸石의 父)現 靑龍寺라 는 私設佛堂住持의 父親)한 事實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서 新羅統一期에 작은 庵子가 建立되었던 것을 推測케 한다. 二重基壇 六角臺座의 모를 따라서 單瓣蓮花의 俯花가 있고 그 위에 立佛이 불어 있다. 法衣을 입 고 左右手에는 一條의 天衣가 다리 옆으로 垂下하였는데 그 線條가 매우 分明하다. 背面的 兩肩中部에는 작은 尖端이 솟아 있고 그 以下臺 座까지는 흙으로 파져 있다. 總高 六·六cm 인 小像이나 鍍金이 大部分 남아 있다.

二、銅佛立像(高麗)(甲) (高甲 一九·三cm、乙 一八·六cm)

이 立像 二軀는 同一한 形態의 佛像으로 中尊佛이 따로 있었던 左右補 處菩薩인 듯하다.

寶冠을 썼고 寶髮이 兩肩에 二條씩 늘어 졌으며 頭後에는 寶冠의 紐인 듯 八字形으로 드러 있었다. 腹部에 裙衣끈을 매듭진 것이 歷然히 나타나 있으며 兩肩에서 발끝까지 裙衣를 늘어 뜨리고 두 손목에



는 소매자락이 걸쳐 있다. 上體胸部는裸體인데乳房이 있을 곳에는二軀에다小孔이左右에 뚫려 있다. 兩立像의左右手が正反對로一手는 들고一手는垂下하여 모두現掌하였다. 背後에는小孔을 가진 고리形이 붙어 있음을 보아서光背를 붙였던痕跡으로 보겠다. 고리붙은 아래에는縱二・三cm 橫一・二cm의角을 죽인四角形구멍이 뚫어져 있다. 鑄型이 있던 곳으로 보이며鑄造時의 잘못으로細長孔과橢圓孔이二個處가 있으며佛像의內部는中空으로 되어졌다. 兩軀立像의出土地는唐津郡貞美面山城里(거북골)이며西紀一九五九年六月十日同里에居住하는南德熙氏가 밭을 갈다가發見하자唐津教育區에서文教部에通報되고筆者가調査한 것이다. 以上佛像以外에도石製壓佛二軀(高一尺과一尺二寸)가 있었으나李朝時代의雜拙品이었다. (唐津警察署庭에 있음)

調査當時들은 바에依하면銅佛이發見된寺址附近에는龜趺가 있다 하여南方五〇〇m地點에는는가운데에碑石一個가埋沒되어農夫의 밭에 밟힌다고 한다. 아마도同寺址에關係되는石碑가 아닐까推想됨으로再調를 바란다.

軍威·義城出土의 金銅佛像 二座

崔 成 鳳

모두筆者家親이發見하여護身佛로奉安하고 있는바其一是 一九三七年夏에、其二是昨夏에出土된 것이다.

一、慶北軍威郡義興面芝湖洞水泰庵①出土(高六・五cm)
寺門앞의담장再築時發見되었다. 舟形光背는下端이 좁아 들었고外緣에는蓮珠帶를 둘러며 약간前屈되었는데頭身光을雙條로서區分하고그外周에는<<>形의火焰文十條를陰刻하였다. 臺座(直徑二・五cm)는圓形으로前面에만單蓮三瓣이 보이며內面に青鏽가 덮여 있다.

矩長의 頭上에는肉髻(或은寶冠形?)가 있으며眉目口鼻가 깊게點刻되었다. 兩手는胸上에서合掌하였고通肩의法衣는兩側으로 길게 내려왔으며裳衣는兩足上을 덮고 있다. 鍍金은 두절계 全面에 남았는데年代는三國末을 不下할 것으로推定되며三國期一光三尊佛의補處像樣式과類似함은특히注目되는바이다.



二、慶北義城郡多仁面鳳井洞大谷寺②「塔밭」出土(高九・四cm) 頭光을缺하였으나頭後에突起가 남아 있으며頭頂은損傷되어佛菩薩의別을알수없다. 長身인데右肩偏袒이며法衣는길게垂下되어左膝部를 덮었고頸環이 있다. 右手는垂下하여寶珠를 잡았고左手또한垂下反掌하였다. 臺座는圓板形無紋이며身臺는火傷되어黑色을 보이 나顔部와法衣사이로鍍金의痕跡이 남아 있고年代는新羅統一前後로推定된다.

註

- ① 水泰庵은羅代創建을傳하여本堂인觀音殿東方에新羅一般型三層破塔이 있다.
- ② 大谷寺(二名大國寺)는高麗末懶翁創建이라傳하며壬辰・丁酉兩倭亂時에全燒되었고그後宣祖三十八年에重建된巨刹이었다 한다. (西紀一六八七年刊大國寺事蹟記에의함)이곳에는靑石塔一基(方形十二層總高一m三六cm)가 있는바次後에紹介하였다.